

祝 辭

2015. 10. 29.(목)

금융결제원(분당) 2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1. 인사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금융결제원 김종화 원장님과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님을 비롯한

은행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 계좌이동서비스 시연을 보니

Payinfo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국민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수익건에 달하는 자동이체정보를

모으고 정리하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는지

실무진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작년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금융결제원과 은행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은행 분야 금융개혁 추진

여러분,

“금융개혁”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금융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에
빈번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경쟁’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규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불필요한 경영관여는 최소화시키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한층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기 발표('15.8.13)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경쟁 구도하에서
국민의 편익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많이 내놓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i)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계좌이동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와 함께
국민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
더욱더 신경을 써야하는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생기겠지만,
고객의 이익과 편익을 우선시하는 은행이 되어야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ii) 또한, 올해 안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지게 되면
고객들이 점포에 오지 않아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확인방식이 범용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른바 바이오인증 시대도
머지않아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iii) 마지막으로, 예금·대출·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년 중 예비인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은행업권의 세 가지 환경변화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누가 먼저, 누가 성공적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두고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 맺음 말씀

여러분,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변화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금융개혁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시장에서

堂堂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좌이동서비스가

비대면 실명확인,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우리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시스템 개발에 수많은 땀방울을 흘리셨을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